

흉노의 동아시아 패권 장악과 일극체제 수립

The Establishment of Unipolar Hegemony by Xiongnu in 3~2 B.C.

이춘식 _고려대 명예교수

Choon S. Lee _Professor Emeritus of Chines History, Korea University

초록

기원전 4~2세기 만리장성(the Great Wall)을 기준으로 동아시아 정세를 살펴보면 장성 남쪽의 중원에는 주 왕조의 봉건적 제후국들이 자주국가로 발전하여 국제사회를 형성하고 이해관계에 따라 치열하게 항쟁하고 있었다. 이들 국가 중에서 북쪽 변방의 후진국 진국이 상앙의 변법에 의해서 군사강국으로 성장하고 이어서 550여 년간 분열되었던 중원을 통일하여 진 제국을 수립하였다. 그리고 진 제국이 와해되자 한 제국이 계승하였다.

한 제국은 당시 세력이 강대해진 제후왕국과 호족들의 세력을 억압하여 국가의 경제·사회적 기반을 안정시키고 관료제도를 개편하여 우수한 인재들을 정기적으로 채용하고 관리들의 불법에 대한 감시와 고발을 의무화 하고 유학(Confucianism)을 국가지도이념(A Guiding Ideology of Nation)으로 채택하여 전제군주 황제를 정점으로 한 중앙집권적 통일제국을 완성하였다. 이 같이 동아시아 남쪽 중원이 한 제국에 의해 통일되고 있는 시기 장성 이북의 북아시아 지역에서도 대일통 작업이 진행되고 있었다.

몽골초원, 오르도스, 남시베리아, 하서 지역 등지를 포함한 북아시아 지역에는 흉노를 포함한 수많은 유목부족들이 군장 통솔 아래 부족 단위로 유목생활에 종사하고 있었는데 한 번도 정착군사적으로 통일된 적이 없었다. 그런데 기원 3세기 경 몽골초원의 흉노가 굳기하여 주변 유목부족들을 복속시키고 북아시아를 통일하여 흉노 유목 제국을 수립하였다. 이와 병행하여 서쪽에는 서역 도시국가들이 할거하고, 남쪽에는 남월국과 동북쪽에는 위만조선(Weimanchaoxian)이 각기 수립되었으므로 동아시아는 장성을 경계로 북쪽의 흉노 제국과 남쪽의 한 제국이 대치하면서 중원의 한 제국, 북쪽의 흉노유목제국, 서쪽의 서역의 도시국가, 남쪽의 남월국, 동북의 위만조선으로 구성된 열국 시대가 전개되었다.

이 중에서 흉노 제국이 대외팽창 정책을 추구하여 서역 도시국가들과 위만조선을 복속시키고 한 제국을 평성에서 대패 시켜서 입공을 받고 있었으므로 당시 동아시아 패권은 흉노 제국이 장악하고 흉노 패권 아래 최초 일극체제의 국제질서가 수립되었다. 그러나 흉노 제국은 무력으로 동아시아의 패권만 장악하여 주변국에 물자와 인력

을 징발하고 입공만 강요하였을 뿐 열국 간의 평화와 번영을 주도하지는 않았다.

이런 점에서 흉노의 패정은 춘추오패 중에서 무력에 기반 하였으면서 화하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주도한 제국의 패정 보다는 화하세계의 평화와 번영은 도외시키고 오직 무력만으로 국제사회를 주도하였던 진국의 패정에 가까웠다고 할 수 있다.

□ 주제어: 흉노, 패권, 탕그리, 몽골초원, 일극체제

Abstract

Xiongnu's hold of a Unipolar Hegemony of Eastern Asia in 2th century B. C. In the period between 4th century and 2th century B. C. the geo-political state of affairs in the China Proper, south of the Great Wall, can be described as an intense state of competition and struggle among Zhou Kingdom's feudal vassal states. Among these, the northern outer and least advanced Qin state emerged as a great military power by way of enforcing Shangyang's renovation. Thus, the Qin Empire(221 B. C.) was established that brought an end to the disunity of the China Proper, which had lasted for 550 years. After collapse of Qin Empire, Han Empire succeeded.

Through suppressing the various strengthened vassal states and great clans and reforming the bureaucratic system by periodically recruiting new talents, the Han empire had fixed the basis of nation. And this led to the stabilization of the social and economic foundation of the empire and resulted in a centralized imperial system with the Emperor at the apex and thus the division of Chin Proper was brought under the control of a unified imperial system. However, this very same process of unification was also taking place north of the Great Wall in Mongol Steppes during this period.

In the Mongol Steppes, north of the Great Wall, the nomadic tribes of various regions had carried on their respective nomadic lifestyle and had never unified politically and militarily. However, by the 3th century B. C. the Xiongnu from the Mongol Steppes subdued and consolidated all the neighboring tribes and established a unified nomadic empire, which pitted itself against the Han Empire south of the Great Wall. Along with this development, numerous city-states thrived to the west of China and Nanyu"ehguo was established in the south while Weimanchaoxian in the northeast of China. Thus, this ushered in the multi state period of East Asia.

In the meantime, the Xiongnu Empire, which unified the vast northern Asia, aggressively pursued an expansionist policy and thereby consolidated the Western city-states, Weimanchaoxian and Han empire, forcing an tributary relationship on all these states. Thus it can be said, the Xiongnu Empire was the first in East Asia to establish a unipolar hegemony. However, although the Xiongnu Empire held military hegemony and dominated over its neighboring states by forcing them in a tributary state status, the Xiongnu Empire was never able to offer any kind

of leadership that promoted peace and prosperity among the states.

Therefore, from this perspective, within the Five Holders of Hegemony of Chu'unqi'u the Hegemony held by the Xiongnu Emire is a lot closer and similar to Jin state's hegemony, which based its leadership solely through military force rather than Qi state's hegemony, which included military dominance but also promotion for peace and prosperity of States of Central Area.

□ Key Words: Xiongnu, Hegemony, Taengri, Mongol steppes, Unipolar system.

선진(先秦) 시대의 동아시아 세계를 살펴보면 농경에 기반하여 풍부한 경제 생활을 누리고 고도의 선진문화를 향유하고 있는 화하세계와 유목, 수렵 아니면 반목반농의 원시적 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몽매한 이적세계로 양분되어 있었다. 그런데 기원전 3세기 진한 제국의 중원 통일과 더불어 이적들도 국가를 수립하기 시작하였으므로 동아시아 세계에는 중원의 진한 제국, 북쪽의 흉노 유목제국, 서쪽의 서역 도시국가, 남쪽의 남월국, 동북쪽의 위만조선이 각기 수립되어 열국 시대를 형성하고 대립 항쟁하고 있었다. 이 같은 대립 항쟁 속에서 흉노 제국은 한 제국을 평성에서 대패시키고 주기적으로 입공을 받고 서역 국가들과 위만조선을 복속 시켰으므로 당시 동아시아 패권은 흉노 제국이 장악하고 있었다. 그런데 종래 연구에서는 흉노를 중국 변방의 단순한 유목민으로 취급하여 흉노-한 제국 간의 입공관계를 화친약에 의한 대등관계로 인식하고 또 흉노의 동아시아 패권 장악을 아예 무시하였는데 이 글에서는 흉노가 중국 변방의 몽매한 유목민이 아니었고 또 흉노-한 제국 간의 관계가 화친약에 의한 대등한 관계가 아니라 입공관계였으며 당시 동아시아 세계는 패권국 흉노를 중심으로 일극체제의 국제질서 수립되었던 사실과 흉노 패권의 의미를 밝혀볼 예정이다.

I. 기원전 4~2세기 동아시아 열국(列國) 시대의 전개

1. 진한(秦漢) 제국의 굴기와 중원 통일

춘추 초기의 100~180여의 제후국들은 주 왕실의 통제력 상실로 독립, 자주국로 발전하여 국제사회를 이루고 자국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치열하게 항쟁하고 있었다. 이 대립 항쟁의 와중에서 대국으로 성장한 제(齊), 진(晉), 초국(楚國)은 패권 장악을 둘러싸고 격렬한 패권 쟁탈전을 야기하였으며, 약소열국은 국명 보존을 위해 사력을 다하게 되었다. 이에 각국은 살아남기 위해서 부국강병책을 추진하지 않을 수 없었으므로 개혁이 모든 분야에서 추진되었는데 이 같은 각국 개혁을 집약하여 국가의 핵심제도로 정착시킨 것이 진국(秦國)에서 시행된 상앙(商鞅, 전 ?~338)의 변법(變法)이었다.

진국은 원래 북쪽 변방에 위치한 후진국이었으나 상앙의 변법 시행에 의해서 군주를 정점으로 관료제도와 군현제도로 조직된 중앙집권체제, 자작 소농민 계층의 육성, 중농역상정책에 기반한 농본(農本)경제, 농전(農戰)체제에 기반한 강력한 무력, 엄법과 신상필벌에 의한 강력한 법치 등으로 조직된 새로운 국가¹⁾ 즉 전제군주국가로 탄생하였다. 이어서 전국6국을 통일하여 진 제국을 수립하였으나 단명의 왕조로 끝났으므로 한 제국이 그 뒤를 바로 이었다.

개국 후 한 제국은 세력이 강대해진 이성·동성의 제후왕국들이 황제와 중앙 정부를 위협하자 문제때는 제후왕국의 영토, 인구, 경제력을 분산시키는 중건제후(衆建諸侯)정책, 경제 때는 제후왕의 죄목을 빌미로 영토를 삭감하는 삭번정책(削藩政策)을 강행하고, 무제 때는 추은령(推恩令)과 주금령(酒金令) 등의 법령을 제정하여 제후왕국을 압박하였으므로 제후왕국의 세력은 완전히 일소되었다. 이어서 무제는 관료제도를 개편하여 우수한 인재들을 정기적으로 채용하고 각 주(州)의 자사를 통하여 태수의 지방 통치를 감시하였으며 견지법(見知法)을 제정하여 관료 상호 간의 감시와 고발을 의무화하고 호족들을 철저히 탄압하여 소농민 층의 사회·경제적 기반을 안정시켰다. 이에 따라 550여 년 간 분열 대립

1) 이춘식, 『춘추전국 시대의 법치사상과 세(勢)·술(術)』 (고려대 출판부, 2002) 200, 352.

되었던 중원은 한 제국에 의해 실제적으로 통일되었다. 그런데 이와 비슷한 시기에 몽골초원을 중심한 북아시아에서도 대통일 작업이 진행되고 있었다.

2. 흉노 제국의 굴기와 북아시아 통일

개국 이전의 흉노는 대체로 북방 몽골의 오르혼(Orhon), 오투켄(Otuken), 셀렝카(Selenga) 강 유역을 포함한 초원지대에서 말, 소, 양 등의 가축을 기르고 수초를 따라 이동하는 유목생활에 종사하고 있었다. 그러나 안으로 흉노는 서쪽의 스키타이 족으로부터 기마술을 습득하여 기마족으로 성장하고 청동제무기로 무장하고 전투적인 유목생활로 단련된 강인한 체력으로 농경사회에서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막강한 세력으로 성장하고 있었다. 그리고 기원전 4 세기경에는 남쪽 오르도스로 진출하여 중원열국의 북변을 압박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진, 조, 연국은 자국 북변에 장성을 구축하여 흉노를 포함한 이적들의 침탈을 제어하였으며 진 제국을 수립한 진시황 역시 흉노의 위협을 간파하고 흉노의 본거지 오르도스를 먼저 공략하여 축출하고 동쪽의 요동에서 서쪽의 임조(臨洮)에 이르는 지역에 만리장성을 구축하였다. 그러나 이미 세력이 강성해진 흉노는 오르도스에서 일시 축출되었으나 세력이 위축된 것은 아니었으므로 진 제국이 조고(趙高)의 국정 농단과 진승(진승) 오광(오광)의 반란으로 혼란에 빠지자 오르도스를 바로 회복하였다. 이 같은 흉노의 굴기는 대체로 두만(頭曼) 선우 때 시작되었으며 그 아들 모둔(冒頓) 선우 때는 더욱 강성해지기 시작하였다.

모둔 선우(전 209-174?)는 등극 후 동쪽으로는 동몽골 지역과 남만주 일대의 동호와 주변 군소부족들을 급습하여 가축과 영토를 병합하고 서쪽으로는 감숙성 서부 이란계의 월지족(月氏族)을 축출하여 영토를 장악하였다. 남쪽으로는 오르도스 부근의 유목민 누란(樓蘭), 백양(白羊) 등의 부족들을 병합하고 북쪽으로는 북몽골에서 남시베리아 일대의 정령(丁零), 흔유(痕廋)을 복속 시켜서 기원전 206 년경에는 몽골초원을 중심으로 동북서에 걸치는 광대한 북아시아 대륙을 통합하여 역사상 전례가 없는 기마국가 흉노 유목제국을 수립하였다.²⁾ 그리

2) 護雅夫, “匈奴-古代遊牧國家の形成”, 『東アジア文明の形成』, 東京: 筑摩書房, 1960, 282-283.

고 그 세력을 기후가 온난하고 물산이 풍부하고 지리적으로 근접한 남쪽의 중원으로 세력을 확대하기 시작하였다.

3. 남월국, 위만조선의 강성과 서역 도시국가

진한 제국 교체기를 전후한 시기 중국 남쪽의 절강, 복건, 광둥 지역에는 월족(越族)이 거주하고 있었는데 가장 대표적 집단은 절강 남부의 동구(東甌), 복건의 민월(閩越), 광동의 남월(南越), 광서의 서구(西甌) 등이었다. 진시황 사후 2세 황제의 무능과 조고의 농간, 한초전의 확대 등으로 진 제국이 무질서와 혼란에 빠지자 남월의 조타(趙佗)가 세력을 규합하여 남월국을 수립하였는데 영토가 사방 수만리에 달하고 백만대군의 무력을 보유하고 있었다.

남월국은 중국계의 군주를 정점으로 승상, 내사, 중위, 태부 등의 대소 관직으로 조직된 위계적 관료제도와 독자적인 형벌체제를 운영하고 대외적으로는 한 제국 천자의 외신 제후왕 책봉을 받고 교역 특권을 얻어서 한 제국과 활발한 교역을 행하고 있었다. 그러나 남월국은 이 같은 외신, 외번의 형식적 의례에 구애 받지 않고 국익에 따라 빈번히 무력을 행사하고 칭제(稱帝)와 칭번(稱藩)을 번갈아 사용하면서 독자적인 외교 활동을 전개하고 있던 남쪽 강국이었다.

한편 이와 비슷한 시기 연국(燕國)의 토착 관리였던 위만(衛滿)은 중원의 정치사회적 혼란과 무질서가 동북 지역에까지 미치자 1000 여 명의 무리를 이끌고 한반도 북부의 고조선으로 망명하였다가 고조선 준왕(準王)을 축출하고 왕검(王險)에³⁾ 도읍하여 위만조선을 수립(전 195?)하였다. 위만조선 역시 영토는 사방 수 천리에 달하고 철제무기로 무장된 강력한 무력을 보유하고 있었다. 대외적으로는 한 제국 천자의 외신 제후왕을 책봉을 수용하여 외번(外藩)관계를 형성하

3) 위만조선 왕조의 수도 왕검성 위치에 대한 학계의 이론은 지금도 분분한데 크게는 한반도의 평양설과 요동설로 구분된다. 평양설은 위만조선 건국 이후 멸망 때까지 평양이 수도였다는 설, 요동설은 위만조선 수도가 요동에 있었다는 두 설이다. 정인보는 왕검성을 지금의 요녕성의 해성, 신재호는 요녕성의 개평, 윤내현은 하북성의 창려 부근, 김남준은 요동성의 환인 지역, 박성용은 하북성 북동부 해안 시대 혹은 요녕성 해안지대로 보고 있다. 필자 역시 후술하는 바와 같은 이유로 왕검성의 위치를 한반도의 평양 보다는 요녕성 일대에 있었을 것으로 추정한다(김남준, “위만조선의 영역과 왕검성”, 『한국고대사연구』22(2001,6), 53, 박성용 외, “한 나라 군사작전으로 본 위만조선 왕형성 위치 고찰”, 『국방연구』 제58권 제2호(2015,6) 참조.

고 있었으나 군주 불입조, 번병임무 거부, 무제의 조서 수령 거부 등의 독자적 정책을 강력히 추진하고 북쪽의 흉노 제국, 중원의 한 제국 그리고 남쪽의 남월국과 더불어 천하 형세를 관망하고 있던 동북 지역의 강국으로 성장하였다.⁴⁾

서역은 북쪽의 천산산맥, 남쪽의 곤륜산맥, 총령(파미르 고원), 옥문관(돈황의 서북)과 양관(돈황의 남쪽)에 의해 둘러싸인 타림분지와 서쪽의 티기스탄 지역으로 구성된 절역 지역을 의미하는데 한초까지는 거의 알려지지 않았다. 흉노 공략 이후 흉노 포로를 심문하는 과정에서 서역의 내부 사정이 알려지게 되었다.

당시 서역은 36여 개의 도시국가로 구성되었는데 각기 고유의 영토를 소유하고 왕이 통치하고 군대도 보유하고 있으나 모두 국력이 미약하고 특성의 강력한 정치·군사적 세력의 출현도 없었으므로 통일된 적이 없었다. 농업과 목축이 주 산업이었다. 농사는 지하에서 올라오는 용천수(용천수) 아니면 오아시스 주변의 수원(水源)에 의지하고 농경지는 도시 주변 토지에 국한 되었으므로 생산력은 극히 미약하였다. 일부 지역에서 목축과 더불어 소규모의 광산 채굴, 병기 제작, 화폐 주조, 공예품 등이 제작되고 있었으나 영세하였다.

그러나 서역은 당시 흉노에게 역속되어 물자와 인력을 제공하고 있었으므로 흉노와 전면전을 전개하고 있는 한 제국은 서역의 이 같은 인력과 물자 제공을 방관할 수 없었으며 또 서역과 동맹을 맺어서 흉노를 서쪽에서 협공할 수 있는 전략적 지역이었으므로 흉노와 한 제국 간에는 서역 장악을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전을 전개할 수밖에 없었다.

이와 같이 기원전 3~2세기 진한 시대를 전후한 동아시아 세계에는 북아시아의 흉노 제국, 중원의 한 제국, 남쪽의 남월국, 동북의 위만조선, 중앙아시아의 서역도시국가 등이 수립되어 열국 시대를 이루고 자국의 이해관계를 중심으로서 대립 충돌하고 있었는데 이 중에서 북 아시아를 통일한 흉노 제국과 남쪽 중원을 통일한 한 제국이 대립 하면서 국제정세를 좌우하고 있었다.

4) 『史記』 卷24, “律書”, 243.

II. 흉노 제국의 동아시아 패권 장악

1. 모둔(冒頓) 선우의 평성(平城) 대승과 한 고조의 입공

북아시아를 통일하여 강력한 유목제국을 건설한 흉노는 기후가 온난하고 물산이 풍부한 남쪽의 중국을 동 서 북의 3면에서 압박하기 시작하였다. 진시황 때 상실하였던 하남(河南) 지역을 전부 회복하고 동북 지역의 연(燕), 대(代) 등지를 수시로 침탈하고 한 고조 6년(전 201년)에는 한왕 신(信)을 마읍(馬邑)에서 포위하여 항복을 받고 구주산(句注山)을 넘어 태원군을 공격하고 진양성(晉陽城)까지 깊숙이 진출하였으므로 전국이 흉노 공포에 떨었다.

이에 한 고조는 32만 여의 보병군단을 이끌고 북상하고 흉노 모둔 선우는 기병 40여 만의 기병을 이끌고 남하하여 산서성 평성(平城)에서 대결하였다. 그러나 한 고조의 보병군단은 모둔 선우의 책략에 빠져서 7일 간 포위되고 극심한 추위 속에 아사지경에 빠져 전군이 거의 궤멸되고 한 고조만이 겨우 포위망을 뚫고 탈출하였는데 이것이 한 고조의 평성 참패였다. 이 같이 대패한 한 고조는 전의를 완전히 상실하고 유경(劉敬)을 보내어 흉노와 화친약(전 198)을 맺었다.

이 화친약은 매년 일정량의 무병, 비단, 누룩, 식량 등의 세폐 봉헌과 매 선우 등극 시 한 황실 공주의 출가로 구성되었다.⁵⁾ 이 외에도 한 제국은 흉노 측의 경사가 있으면 많은 예물을 보내고 국경 지대에 관시를 개설하여 흉노 측의 물자 수요에 응하고 또 형제관계를 맺어서⁶⁾ 양국의 우호관계를 돈독히 하였는데 그 대가는 흉노의 한 제국 북변 침탈의 중지였다. 이 같은 흉노-한 제국 관계는 한 고조 9년(전198)에서 무제 원년(전134)까지 약 64 여 년간 계속되었는데 한 제국은 이 화친약에 의한 상호관계를 대등관계로 인식하였다. 그런데 문제 때의 가의(賈誼, 전 200?~168)는 화친약을 아래와 같이 평가하였다.

“천하의 세가 거꾸로 되어 있다. …무릇 천자는 천하의 머리이다. 그 이유는 위에 있기 때문이다. 만이는 천하의 발이다. 그 이유는 아래에 있기 때문이다. …지금 한은

5) 『新書校注』, “解縣”, 127, “威不信”, 131. 『漢書』 “匈奴列傳”, 2241. 참조

6) 『新書校注』, “解縣”, 127, “威不信”, 131. 『漢書』 “匈奴列傳”, 2241. 참조

매년 금숨비단 등의 세폐(歲幣)를 봉정하고 있다. 이적이 공물을 징구하는 것은 주상이 조정하는 바이고 천자가 공물을 납입하는 것은 신하의 예이다. …발이 오히려 머리 위에 있고 머리가 발아래에 있다. 이 같이 거꾸로 되어 있으니 해결할 수가 없다(天下之勢方倒縣…凡天子者 天下之首 何也 上也 蠻夷者 天下之足 何也 下也 …而漢歲致金絮采繒以奉之 夷狄懲令 是主上之操也 天子共貢 是臣下之禮也 足反居上 首顧足下 倒縣如此 莫之能解.)⁷⁾

폐하께서는 황제의 이름을 갖고 어찌 용인의 제후 노릇을 차마 하고 있는 것입니까? (陛下何忍以帝皇之號爲戎人諸侯…)⁸⁾

여기에서 보면 가의는 한 제국이 흉노 선우에게 매년 봉헌하는 금, 숨, 비단, 쌀, 음식물 등의 세폐 봉헌을 한 제국이 흉노에게 헌상하는 공물(貢物) 즉 입공(入貢)으로 인식하고 있다.

적국의 군주는 내가 비록 옳은 말을 해도 나한테 공물을 보내지 않는다. 나라 안의 제후들은 내 행동이 비록 옳지 않아도 새 짐승 등의 공물을 가지고 반드시 입조 한다. 그러므로 힘이 강하면 사람들이 와서 조공을 하고 힘이 약하면 남에게 조공해야 한다. 그러므로 현명한 군주는 힘 양성에 노력한다(故敵國之君王 雖說吾義 吾弗入貢 而臣關內之侯 雖非吾行 吾必使執禽而朝 是故力多則入朝 力寡則朝於人 故明君務力)⁹⁾

이것은 약육강식이 난무하였던 전국 시대의 국제역학관계를 분석한 한비자(韓非子)의 언급이다. 한비자는 이 언급 속에서 각국 간에 힘이 강하면 공물을 받고 힘이 약하면 공물을 바친다는 국제적 역학관계를 명확히 지적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국가 간의 입공은 상호 역학관계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하였다. 또 한대 흉노를 포함한 주변 이적만이와의 접촉관계를 취급한 『염철론(鹽鐵論)』에도 똑같은 지적이 있다.

7) 위 책, “解縣” 127, “威不信”, 131. 『漢書』 “匈奴列傳”, 2241. 참조

8) 『漢書』, 卷94上, “匈奴列傳”, 2241.

9) 『韓非子』, “顯學編”, 461.

힘이 강하면 입조를 받고 힘이 약하면 입조하게 된다(力多則入朝 力寡則朝於人).¹⁰⁾

이 같이 한대에도 국가 간에 힘이 없으면 조공을 하고 힘이 있으면 조공을 받는다고 하여 입공 또는 조공관계는 국가 간의 역학관계 의해서 결정된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한 제국이 평성 참패 후 북변 침탈 중지 조건으로 흉노 선우에 대한 매년 다액의 세폐 봉헌과 한 제국 황실공주의 출가는 뇌물도 선물도¹¹⁾ 아니었다. 한마디로 말해서 무력이 약한 한 제국이 무력이 강한 흉노 선우에게 정기적으로 헌상하는 공물 즉 입공(入貢)이었다.¹²⁾ 그러므로 화친약에 기본적인 양국관계는 평등관계가 아닌 입공관계였으며 이 같은 입공관계는 무제 등극 원년까지 약 64여 년 간 계속되었다.

2. 흉노의 서역 경략과 동복도위(僮僕都尉) 설치

흉노는 한 제국이 서역을 구체적으로 인식하기 이전에 서역에 진출해 있었다. 기원전 177년 경 흉노는 감숙 지방의 월지국을 이리 지방으로 축출하고 이어서 한 제국과 타림분지를 연결하는 길목에 위치한 누란(樓蘭)과 고사(姑師)을 정복하고 타림 분지 안의 도시국가들을 차례로 복속시켜서 지배하에 두고 있었다.¹³⁾

오손의 서쪽에서 안식에 이르기까지는 흉노와 가까웠다. 흉노가 월지를 괴롭히고 나서부터는 흉노 사신이 선우의 편지를 가지고 있지만 하면 나라마다 음식을 차례로 보내주며 감히 억류하고 고통 주는 일은 없었다. 그러나 한 나라 사신이 가면 재물을

10) 『鹽鐵論』, “誅秦”, 488.

11) Yu, Ying-shih, *Trade and Expansion in Han China*, Berkeley and Los Angeles: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67, 41.

12) 이춘식, 『중국패권의 뿌리와 이념』, 고려대학교 출판부, 208. 흉노 유목제국과 한 제국 간의 화친관계를 김한규는 평등조약 관계로 인식하고 있다(김한규, 앞 책 198). Nichola Dicosmo는 한 제국의 흉노 선우에 대한 매년 다액의 금, 솜, 비단, 쌀, 음식물 등의 세폐 봉헌을 ‘bribes’ ‘ho-chin payment’ 등으로 혼란스럽게 이해하고 있다(*Ancient China and its Enemies. The Rise of Nomadic Power in East Asian History*, 195 참조).

13) 『史記』 卷63, “大宛列傳”, 3171.

주지 않고서는 먹을 것을 얻을 수가 없고, 가축도 사지 않으면 탈 수가 없었다. ...이것은 한 나라의 사신보다 흉노를 더 두려워한 탓이었다(烏孫以西至安息 以近匈奴 匈奴困月氏也 匈奴使持單于一信 則國國傳送食 不敢留苦 及至漢使 非出幣帛 不得食 不市畜不得騎用...然以畏匈奴於漢使焉).¹⁴⁾

서역의 여러 나라들은 대부분 정착생활을 하며 성곽, 밭, 가축을 가지고 있다. 흉노와 오손은 풍속이 달랐는데 모두 흉노에게 복속하고 있었다(西域諸國大率土著 有城郭田畜 與匈奴烏孫異俗 故皆役屬匈奴).¹⁵⁾

이 같이 모든 선우가 감속성 일대에 유목생활을 하고 있던 월지를 축출한 후 흉노 세력은 오손국 서쪽에서 안식국에 이르는 지역까지 미치고 있었다. 그러므로 흉노 선우 사신이 나타나면 서역 각국은 흉노 사신의 편의를 서로 봐주고 극진히 대접하였으며 반면 한 제국 사신들은 냉대하고 차별 하였다.

하늘이 세운 흉노 대선우는 삼가 황제에게 문안하오니 그간 무양하시오?...우현왕에게 그 벌로써 서쪽으로 월지를 토벌하게 하였소. 다행히 하늘의 가호로 단련된 병사와 강건한 말로써 월지(月氏)를 쳐서 모조리 죽이고 항복한 자를 모두 참살하였소. 누란(樓蘭) 오손(烏孫), 호게(呼揭) 및 그 주변 26개 국을 평정하여 이들을 모두 흉노에 병합하였으므로 모든 유목민들은 한 집안이 되었으며 북쪽 지방은 이미 안정되었소(天所立匈奴大單于敬問皇帝無恙...罰右賢王 使之西求月氏擊之 以天之福 吏卒良馬疆力 以夷滅月氏 盡斬殺降下之 定樓蘭 烏孫 呼揭 及其旁二十六國 皆以爲匈奴 諸引弓之民 竝爲一價 北州已定).¹⁶⁾

이것은 새로 등극한 흉노의 노상 선우가 우현왕에게 서역의 월지를 포함하여 누란, 오손, 호게 등의 주변 26여 개 국을 정벌하게 하여 흉노와 한 집안으로 만들었다는 사실을 한 문제에게 알린 것이다. 여기에서 언급되고 있는 26개국은 사실 36개국의 오자였으므로 당시 노상 선우는 서역 36개 국 전부를 평정한

14) 위 책 卷63, “大宛列傳”, 3173.

15) 『漢書』 卷96上, “西域傳”, 3873.

16) 『史記』 卷110, “匈奴列傳”, 2897. 漢書 卷94上, 3757 참조.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¹⁷⁾

사신의 말에 의하면 선우께서는 몸소 장군이 되어 여러 나라들을 쳐서 공을 세우고 심히 싸움으로 인한 고생이 많았다 하니 특별히 대례복(大禮服) 수갑기의(繡袷綺衣), 수갑장유(繡袷長襦), 금갑포(錦袷袍) 각각 한 벌, 비여(比余) 1개 황금 식구대(飾具帶)와 서비(胥紕) 1개, 수놓은 비단 10필, 비단 30필, 붉은 비단과 푸른 비단 각각 40필을 중대부(中大夫) 의(意)와 알자령(謁者令) 건(綱)을 시켜서 선우에게 보내는 바이오(使者言單于自將伐國有功 甚苦兵事 服繡袷綺衣 繡袷長襦 錦袷袍 各一 比余一 飾具帶一 黃金胥紕一 繡十四匹 錦 三十四 赤紕 緣繒各四十四 使中大夫意 謁者令肩遺單于).¹⁸⁾

이것은 노상 선우가 서역 36 개국을 평정하여 흉노의 일가로 만들었다는 통고에 대한 한 문제의 답변이다. 이에 의하면 문제는 선우의 노고에 대해서 칭찬과 수고를 표시하고 그에 대한 위로로 귀하고 사치스런 물자를 선물로 봉헌하였는데 이것은 사실상 중앙아시아 일대를 장악한 흉노 노상 선우에 대한 한 제국 문제의 아부와 두려움의 표시였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모든 선우의 동쪽 동호와 주변 군소부족들의 병합, 서쪽의 월지족의 축출과 중앙아시아 일대 석권, 남쪽의 오르도스 부근의 누란, 백양 등의 부족 병합, 북쪽의 정령, 혼유 복속 그리고 평성에서 한 고조 참패 등은 흉노의 1차 팽창이었다고 한다면 노상 선우의 서역 경략은 흉노의 2차 팽창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흉노는 서역 36여 개국을 경략한 후 3단계로 통어하였는데 질자(質子) 담보, 감시단(監視國) 파견 그리고 동복도위(僮僕都尉) 설치였다. 흉노는 서역 각국에 질자를 요구하여 흉노 선우의 왕정(王庭)에 거주시키고 질자를 담보로 서역 각국의 복속과 충성을 강요하였으며 유사시에는 질자를 왕으로 등극 시켜서 친 흉노 정권 수립과 유지에 노력하였다. 또 서역 각국에 감시단을 주둔 시켜서 각국 동태를 감시하여 반 흉노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였다.¹⁹⁾ 그런데 흉

17) 松田壽男著作集 2, “匈奴の僮僕都尉と西域36國”, 『遊牧民の歴史』, 東京:六興出版, 1986, 134.
18) 『史記』 卷110, “匈奴列傳”, 2897.

노의 이같은 서역 정책 중에서 핵심적인 정책은 동북도위 설치였다.

흉노 서쪽 변경의 일축왕은 동북도위를 설치하여 서역을 통령하였다. 항시 언기(焉耆), 위수(危須), 위려(尉黎)의 중간 지역에 거주하면서 여러 나라에 부세를 부과하고 재화와 물자를 취하였다(匈奴西邊日逐王置僮僕都尉 使令西域 相居焉耆 危須 尉黎間 賦稅諸國 取富給焉).²⁰⁾

이 같이 흉노 일축왕은 서역 교역의 중심지 언기, 위수, 위려 일대의 중간 지역에 동북도위를 설치(전 93?)하고 서역 각국으로부터 부세를 징수하고 인력과 물자를 징발하였다. 당시 흉노는 초기의 팽창 과정과 한 제국과의 장기전에서 전투 병력 외에 부역 담당의 많은 인력과 군수물자가 대량 필요하였다. 그러나 흉노는 인구가 희소하고 빈약한 유목경제였으므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는데 동북도위가 그 일부를 조달하였던 것으로 생각된다.²¹⁾ 아래 사실은 동북도위의 경제 역할이 얼마나 중요했는가를 말하고 있다.

…이에 정길(鄭吉)로 하여금 북도를 함께 보호하게 하고 그로 인해 도호(都護)라고 부르게 되었으므로 도호는 정길에서 부터 시작되었다. 이로 인해서 동북도위는 폐지되고 흉노는 더욱 쇠약해져서 서역에 가까이 올 수 없게 되었다(乃因使吉并護北道 故號曰都護 都護之起 自吉置矣 僮僕都尉由此罷 匈奴益弱 不得近西域).²²⁾

당시 한 나라는 동쪽으로는 예맥과 조선을 멀하여 군(郡)으로 삼고…또 서쪽의 월지, 대하와 통교하고 공주를 오손왕의 처로 출가시켜서 흉노를 지원하는 서역 국가와 흉노와의 사이를 차단하였다(漢使楊信於匈奴 是時漢東拔穢穢 朝鮮以爲郡…漢西通月氏 大夏 又以公主妻烏孫王 以分匈奴西方之援國).²³⁾

19) 西域都護府的建立, 2010年 01月 28日:56 新疆哲學社會科學網, 1-2.

20) 『漢書』 卷96上, “西域傳”, 3873.

21) 『アジア 歴史辭典』 7, 平凡社, 88.

22) 『漢書』 卷96上, “西域傳”, 3875.

23) 위 책 卷94上, “匈奴傳”, 2013.

위 인용문에 의하면 흉노는 한 제국의 서역 진출로 서역 지원을 상실하게 되었는데 이것은 사실상 흉노의 경제 기반의 파탄이었다. 그러므로 세력이 급속도 약화된 흉노는 고비사막 이북으로 퇴각하였다는 것인데 이것은 무제의 흉노 공략 이전까지는 서역은 흉노의 오른팔로 역속(役屬)되어 병참기지 역할을 하고 있었던 사실을 말하고 있다.

3. 흉노의 동북 전략과 위만조선

앞 절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위만조선은 서쪽으로는 요동의 패수(泃水)를 경계로 한 제국 영토와 인접하고 북쪽으로는 흉노 제국의 영토와 인접하고 있었으므로 상호간의 접촉과 교류가 있었을 것은 분명한데 기록상으로는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우회적 방법으로 위만조선을 중심한 흉노와 한 제국 간의 상호관계를 살펴볼 수밖에 없다.

위만조선이 한 제국과 공식적 관계를 수립한 것은 혜제~여후(전 195~188?) 시기였다. 한 제국은 요동 태수를 통하여 위만조선과 조약을 맺었는데 이 조약에 의거하여 위만조선은 한 제국 천자의 외신 제후왕 책봉과 변병(藩屏) 임무를 부여받고 그 대가로 군사경제적 원조를 받았으며 이 군사경제적 원조로 무력을 양성하여 영토를 확장하였다. 그런데 위만조선의 한 제국 천자 외신 제후왕의 책봉 수용은 위만조선 왕의 입조가 전제된 것이었는데 이후 위만조선은 왕의 입조는 물론 사신 입공도 행하지 않았으며 또 주변만이 군장들의 한 제국 천자 입현까지 차단하였다. 따라서 양국관계는 극히 비우호적이었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 기간은 위만조선이 한 제국 천자의 책봉 수용과 ‘병위재물’의 군사경제적 원조를 받았던 시기를 제외한 문제, 경제, 무제의 섭하(涉河) 파견 직전까지의 시기 즉 기원전 179?년에서 109?년까지의 약 70여 년이 넘는 장기간이었다.²⁴⁾ 그리고 섭하 파견 이후에도 우거왕의 무제의 조서 수령 거부와 요동동부도위 섭하의 살해 등의 불미스런 사건의 연속적 발생으로 양국관계는 돌이킬 수 없게 악화되었으며 마침내 전쟁으로 확대되어 위만조선의 멸망으로 이어졌다. 이 같

24) 이춘식, 앞 책, 250.

이 한 제국과 위만조선의 양국관계는 초기를 제외하고는 장기간 극히 비우호적 내지 적대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

반면 홍노 제국과 위만조선의 양국관계도 자료의 결핍으로 우호적 또는 적대적이었는지 알 수가 없다. 최근에는 홍노의 난방법과 고구려 난방법의 유사성, 고분(古墳, the Tumulus) 축조 매장법의 공통성, 홍노의 화살촉(嗚矢, Whistling Arrowheads)과 경주에서 발견된 화살촉의 유사성 등의 풍속과 유물의 유사성을 들어 홍노, 부여, 고구려가 만주 지역에서 흥기한 동족(同族)으로 인식하는 가설, 모든 선우가 몽골 초원에서 홍노 제국을 건설할 때 동북지역 관리를 위만에게 맡겼으므로 위만조선은 홍노의 위성국가(Satellite State)였을 것이라는 가설,²⁵⁾ 또 홍노와 인접된 고조선에서 출토된 마구, 무덤 등의 출토물이 홍노 양식을 계승하고 있다는 등의 제기되고 있다.²⁶⁾ 또 위만조선에서 생산된 담비 가죽이 증개교역을 통해서 홍노에 거래되고 다시 한 제국에 교역되었던 사실을 들어서 홍노와 위만조선 간에는 증개교역을 통해 밀접한 관계가 형성되었을 것이라는 이론도 제기되고 있다.²⁷⁾

이 같이 홍노와 위만조선 간의 상호관계는 자료의 결핍으로 고고학적 출토물과 증개교역 측면에서 어떤 유기적 관계 형성 가능성만 제기되고 있을 뿐 정치군사적 상호관계에 대해서는 아직 밝혀진 것이 없다. 그러나 홍노와 위만조선 간의 보다 유기적인 관계 수립은 간접적이기는 하지만 아래 자료에 의해서 추적해 볼 수 있다.

...당시 한 나라는 동쪽으로는 예맥과 조선을 멀하여 군으로 삼고 서쪽으로는 주천군을 두어서 홍노와 강족과의 통로를 차단하였다. 한 나라는 또 서쪽의 월지, 대하와

25) Maurizio RiOTTO, "Ancient Koreans-Xiungnu: What was the Nature of Their Relation?", *Journal of Northeast Asians History*, Vol. 6, No.1(June 2009), 5-35. 이 글에서 Maurizio RiOTTO는 따라서 Maurizio RiOTTO는 위만조선의 창업주 "위만이 연 나라 관리였다"는 『사기』 『한서』 『삼국지』 등의 중국 측 기록을 무시하고 고고학적 출토물, 풍속과 제도상의 유사성에 근거하여 홍노와 위만조선 간의 관계를 파악하고 있다. 그리고 필자 역시 위의 여러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홍노-위만조선 간의 상호관계는 극히 우호적이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26) 강인욱, "기원전4~기원전 1세기의 고고학 자료로 본 홍노와 동아시아", 『중앙아시아 연구 제15호』, 9-10.

27) 최슬기, 衛滿朝鮮과 '穢裘' 交易,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6, 7. 78.

통교하고 공주를 오손왕의 처로 출가시켜서 흉노를 지원하는 서방의 국가와 흉노와의 사이를 차단하였다(…是時漢東拔穢貊 朝鮮以爲郡 而西置酒泉郡 以隔絕胡與姜通之路 漢右西通月氏 大夏 又以公主妻烏孫王 以分匈奴西方之援國).²⁸⁾

효무제는…동쪽으로 조선을 정벌하여 현토와 낙랑 2군을 설치하여 흉노의 왼팔을 잘랐다(孝武皇帝…東伐朝鮮 起玄菟 樂浪 以斷匈奴左臂)²⁹⁾

무제 대외정책의 주요 목표는 흉노였다. 위만조선을 멸한 이유 중의 하나는 흉노의 오른 팔을 자르기 위한 것이었고 서역과 통교한 것은 흉노의 오른팔을 자르기 위한 것이었다(武帝對外也可以匈奴爲).

위 인용문에 의하면 한 제국은 서역을 흉노의 오른팔로, 위만조선을 흉노의 왼팔로 지목하고 한 제국이 서역과 통교한 것은 흉노의 오른팔을 끊기 위한 것이었고 위만조선을 정벌한 것은 흉노의 왼팔을 끊기 위한 것이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런데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서역은 흉노에게 물자와 인력을 지원하고 있었기 때문에 흉노 오른팔로 지목되어 경략되었지만 위만조선이 흉노의 왼팔로 지목된 이유에 대한 설명은 없고 단지 흉노의 왼팔이었기 때문에 정벌하였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한 제국이 위만조선을 흉노의 왼팔로 지목하고 정벌한 것은 분명히 어떤 정치·군사적 이유가 있었을 것이므로 당시 전개되고 있던 동아시아의 국제역학관계에서 검토해 볼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한 제국이 흉노에게 반격을 개시하였을 때 한 제국은 서역을 흉노의 오른팔 그리고 위만조선을 흉노의 왼팔로 지목하였다. 한 제국이 서역을 흉노 오른팔로 지목한 것은 서역이 흉노에게 역속 되어 인력과 물자를 공급하고 있었기 때문에 흉노 오른팔로 단정하고 인력과 물자 공급을 차단하기 위해서 서역을 경략하였던 것이다. 이 같은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위만조선도 서역과 마찬가지로 흉노에 대한 어떠한 형태의 병참 지원 또는 이에 준하는 어떤 유기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있었기 때문에 흉노의 왼팔로 지목되고

28) 『漢書』卷94上, “匈奴傳”, 2913.

29) 위 책 卷73, “韋賢傳”, 2913.

정벌을 받았던 것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다.

이 같이 때 흉노와 위만조선 영토가 인접한 지리적 조건, 양국 간의 고고·문화적 측면에서 상호 연관성, 양국 간에 진행된 중개교역 그리고 당시 국제역학 관계의 구도 등의 상황을 검토해 보면 흉노와 위만조선 간에는 분명히 어떠한 형태의 정치·군사적 유대가 형성되어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시 말하면 위만조선-한 제국 간에는 장기적 비우호적 관계가 계속되고 있는 동안 흉노-위만조선 간에는 장기간의 우호관계가 수립되어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음 주목되는 것은 위만조선의 전략적 가치와 지정학적 위치이다.

여러 좌방의 왕과 장군들은 동쪽에 주둔하며 상곡 군에서부터 동쪽을 맡았는데 예맥과 조선에 접해 있었다(諸左方王將居東方 直上谷 以往者 東接濊貊 朝鮮).³⁰⁾

그 이듬 해 오환이 흉노 동쪽 변경의 고석왕(姑夕王)을 공격하여 백성들을 납치하였으므로 선우가 화를 냈다(其明年 烏桓擊匈奴東邊姑夕王 頗得人民 單于怒).³¹⁾

위 인용문에 의하면 위만조선은 서쪽으로는 요동의 패수(溟水)를 경계로 한 제국의 동북 국경과 인접하고 북쪽으로는 예맥(濊貊)과 더불어 흉노의 동쪽 영토와 인접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흉노-한 제국 간의 전면전이 발발하는 경우 위만조선은 흉노 제국과 연합하여 동북쪽에서 한 제국을 압박할 수 있고 반대로 한 제국과 연합하여 흉노 제국의 동북쪽을 공략할 수 있는 전략적 위치에 있었다. 다시 말하면 위만조선의 대외정책 향방에 따라서 동아시아 국제정세가 요동칠 수 있었다.

또 후일 국력을 축적한 한 제국이 흉노 패권에 도전하였을 때 한 제국은 장건을 서역에 보내어 서역의 흉노에 대한 물자와 인력 공급을 차단하고 군사동맹을 맺어서 흉노를 협공하고 섭하를 위만조선에 보내어 흉노를 동북쪽에서 협공하려고 하였던 전략을 수립하였는데³²⁾ 이 같은 한 제국 패권전략의 기본 틀은

30) 『史記』 卷110, “匈奴列傳”, 2890.

31) 『漢書』 卷94下, “匈奴傳”, 3791.

32) 이춘식, 앞 책, 251-253.

그 방향만 달랐을 뿐 사실상 흉노의 패권전략의 기본 틀과 사실상 일치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동아시아 국제역학구도에서 흉노와 한 제국은 위만조선의 지정학적 위치와 전략적 가치를 인지하고 있었던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때 흉노-위만조선 양국은 영토가 인접된 지리적 조건, 양국 간의 고고·문화적 측면에서 상호 유사성과 연관성, 양국 간의 중개교역 유통망, 흉노, 한, 위만조선 간의 국제역학구도 속에서 위만조선의 지정학적 위치와 전략적 가치, 위만조선과 한 제국 간의 장기적 비우호 관계, 동아시아 국제역학구도에서 패권 장악에 대한 흉노-한 제국 간의 전략적 일치 그리고 한 제국의 위만조선의 흉노 원팔 지목과 정벌 등의 여러 상황을 검토해 보면 흉노는 한 제국 보다 훨씬 이전에 위만조선의 전략적 가치를 인지하고 어떠한 형태의 정치·군사적 유대를 형성하고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같은 사실들을 종합해 보면 흉노는 동쪽으로는 위만조선과 강력한 우호관계를 수립하고 서쪽으로는 서역을 역속 시켜서 병참 지원을 받으면서 남쪽으로 한 제국을 압박하여 입공을 받고 있었으므로 당시 동아시아 세계는 유일한 패권국 흉노 제국을 중심으로 하나의 일극체제의 국제질서가 수립되어 있었다. 다음 장에서는 흉노 패업의 실체와 성격을 춘추 시대에 출현하였던 춘추오패의 패업과 비교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IV. 흉노 제국 패업의 실체와 정치이념

1. 춘추 시대 오패의 패정과 흉노의 패정

춘추 시대에는 서주 왕조의 100~180여의 봉건 제후국들이 각기 처한 자연환경과 지리조건 속에서 자립을 가속하여 자주국가로 발전하였는데 이들 국가들은 국력 강약에 따라 대국, 차국, 소국 등으로 성장하여 국제사회를 형성하고 자국 이해관계에 따라 치열하게 대립 항쟁하고 있었다. 이 같은 대립과 항쟁 속에서 중원 변두리에 위치한 제(齊), 진(晉), 진(秦), 초국(楚國)은 주변의 이적 부족들을 정벌하고 영토를 병합하여 대국으로 성장하고 주왕을 대신하여 국제

정치의 주도권을 장악하고 중원을 제패하려고 하였으므로 대국 간에는 격렬한 패권 쟁탈전이 야기되었다. 이에 따라 춘추 시대에는 춘추오패(春秋五霸)가 출현하여 차례로 중원 패권을 장악하고 패정을 전개하였다.

춘추오패를 열거해 보면 『순자(荀子)』 「왕제」 편에는 제 환공·진 문공·초 장왕·오왕 합려, 월왕 구천을 들고 있고, 『백호통(白虎通)』은 제 환공·진 문공·진 목공·송 양공·초 장왕을 내세우고 있다. 또 『한서(漢書)』에는 제 환공·진 문공·진 목공·송 양공·오왕 부처를 열거하고 있는데 이들 오패의 실체와 역사적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패(霸)’의 뜻을 알아볼 필요가 있다.

『설문해자(說文解字)』 월부(月部)에 보면 ‘패(霸)’는 달 표면의 어두운 면을 상징하는 ‘백(魄)’을 의미하고 있다.³³⁾ 『관당집림(觀堂集林)』에 보면 달 표면에는 밝은 부분의 혼(魂)과 어두운 부분의 백(魄)이 있는데 ‘패’는 달 어두운 부분의 ‘백(魄)’을 뜻한다고 하였다. 『증운(增韻)』 「맥운」에서는 달 표면의 검은 부분을 백(魄) 또는 패(霸)라고 한다면서 달 표면의 어두운 부분의 ‘백(魄)’과 ‘패(霸)’를 동일시하고 있다. 『백호통(白虎通)』에서는 “달이 3일이 지나면 어두워졌다가 8일이 지나면 밝아진다”고 하면서 “이 처음으로 밝아지는 것을 패(霸)”라 하고 있다. 『설문해자』에서도 “패”는 “달이 처음으로 빛을 발하는 모습”³⁴⁾이라 하고 『자통(字通)』에서도 “패는 달빛이 처음으로 하얗게 빛나는 모습”³⁵⁾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 같은 여러 이론을 종합해 보면 ‘패(霸)’는 달이 처음으로 빛을 발산하는 모습(月始生霸然也)³⁶⁾을 상징하고 있는데 신흥의 정치·군사적 지도자 즉 ‘백(伯)’ 또는 ‘방백(方伯)’ 또는 보호자(Protector)를 의미하고 있다.³⁷⁾ 이런 점에서 춘추오패는 ‘패’와 같이 밝아지고 있는 신흥의 정치·군사적 지도자 즉 제후들의 맹주(盟主)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다.³⁸⁾ 이 춘추오패 중에서 ‘패’ ‘패정’의 실체와

33) 大漢和辭典 卷12, 79.

34) 『說文解字義證』, 589.

35) 白川靜, 『字通』, 平凡社, 678.

36) 『說文解字義證』, 589.

37) 白川靜, 『字通』, 平凡社, 678.

38) Sydney Roson, “Changing Conceptions of the Hegemon in Pre-Ch'in China” in David T. Roy and Tsuen-hsui, eds., *Ancient China*, Hong Kong : The Chinese University Press, 1978,

성격을 분명히 드러냈던 제 환공과 진 문공의 패업을 중심으로 춘추 시대 패, 패정의 실체와 의미를 살펴보자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춘추 초기 100~180여의 봉건 제후국들은 각기 처한 자연환경과 지리조건 속에서 자립을 가속하다가 춘추 중기에는 자주국가로 발전하였다. 그리고 국력 강약에 따라 대국, 차국, 소국 등으로 성장하여 국제사회를 형성하고 자국 이해관계에 따라 치열하게 대립 항쟁하고 있었다. 이 같은 대립과 항쟁 속에서 중원 변두리에 위치한 제(齊), 진(晉), 진(秦), 초(楚) 나라는 주변의 이적 부족들을 정벌하고 영토를 병합하여 대국으로 성장하고 주왕을 대신하여 국제정치의 주도권을 장악하고 중원을 제패하려고 하였으므로 대국 간에는 격렬한 패권 쟁탈전이 야기되었다. 이에 따라 춘추 시대에는 춘추오패가 출현하여 차례로 중원 패권을 장악하고 패정을 전개하였다.

춘추 시대에 활약했던 패주(霸主)를 열거해 보면 소위 춘추오패라 하여 5인의 패주를 열거하고 있다. 『순자(荀子)』 「왕제」 편에는 제 환공진 문공초 장왕오왕 합려, 월왕 구천을 들고 있고, 『백호통(白虎通)』은 제 환공진 문공진 목공송 양공초 장왕을 내세우고 있다. 또 『한서(漢書)』에는 제 환공진 문공진 목공송 양공오왕 부처를 열거하고 있다. 이 춘추오패 중에서 제일 먼저 패권을 장악하고 패정을 시행하였던 패주(霸主)는 제국의 환공이었다.

왕위계승을 둘러싸고 야기된 내분을 수습하고 등극한 제 환공은 관중(管仲)을 상(相)으로 기용하여 정치제도 개혁, 군사제도 개편, 상공업 장려와 무역 진흥을 포함한 삼국오비제(三國五鄙制)의 국정개혁을 통하여 부국강병을 이룩하고 동방의 대국으로 떠오르고 있었다. 그런데 남쪽 만이 출신의 초국도 같은 시기에 굴기하여 중원의 노(魯), 송(宋), 진(陳), 정(鄭), 채(蔡) 등의 약소열국을 위협하였으므로 다급해진 약소열국은 제 환공에게 구원을 청하였으며 제 환공은 그동안 축적된 국력을 배경으로 구원 요청에 응하였다.

제 환공은 기원전 678년 노, 송, 진, 조, 허, 위, 활 등의 8국과 동맹군을 형성하여 소릉(召陵)에서 대치한 초군을 굴복 시키고 유(幽)에서 회맹을 개최(전 667) 하였다. 그리고 제후들을 대동하고 주 혜왕에게 조군을 행하였는데 이 때 주

혜왕은 제 환공을 패자로 인정하였다. 이 같이 패자로 인정받은 제 환공은 북방 산융의 침입을 받은 연국을 구출하고(전 664), 형국을 침입한 적인을 격퇴하였으며(전 661), 적인들의 침입으로 위국과 형국이 멸망하자 병력을 보내어 축출하고 두 나라를 재건하여 주었다. 또 노국에서 후사 문제로 내분이 발생하자 희공(僖公)을 즉위시키어 노국을 안정시켰으며 적인들이 또 송국을 침입하자 격퇴하여 송국을 구출하였다(전 657). 또 주에 침입한 용족을 축출하고(전 647) 병력을 주둔시켜서 보호 하였다(전 644).

제 환공은 다시 기원전 651년 하남성 고성(考城)에서 규구회맹(葵丘會盟)을 개최하여 각국이 준수해야 할 규약을 체결하였는데 1) 불효자를 주살하고 태자를 바꾸지 않으며 첩을 처로 하지 않는다, 2) 현인을 존중하고 인재를 양성하며 유덕자를 표창한다, 3) 노인을 봉양하고 어린아이를 사랑한다, 4) 선비는 관직을 세습 또는 겸임하지 않고 또 관리를 선발하는 데 적임자를 택할 것이며 군주라도 함부로 대부들을 살해해서는 안 된다, 5) 제방(堤防)을 임의로 바꾸어 수리를 독점해서는 안 되고 또 타국의 곡물 구입을 방해해서는 안 되며 사람을 봉했 때는 맹주(盟主)에게 보고해야 한다는 내용 등이었다.

이 규구회맹의 규약을 정리해보면 화하열국을 부활시키고 그 자손들이 단절되지 않도록 배려한 존망계절(存亡繼絕), 화하를 보호하고 이적을 배척하는 내제하외이적(內諸夏外夷狄), 주왕을 존중하고 이적들을 척결하는 존왕양이(尊王攘夷)의 정책으로 요약할 수 있는데 한 마디로 말해서 화하세계의 결속, 평화와 공동번영을 도모한 것이었다. 그리고 후대의 공자는 자신의 시대까지 미치고 있는 제 환공의 혜택을 높이 칭찬하였는데³⁹⁾ 이것은 제 환공의 패정 아래 화하세계가 장기간의 평화와 공동 번영을 누리고 있었던 사실을 말하고 있다.⁴⁰⁾ 이런 점에서 제 환공의 패정은 단순히 무력으로 국제사회를 주도한 것만이 아니라 화하세계의 결속, 평화와 공동번영을 주도한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제 환공의 패업을 이어받은 것은 진 문공(전 636-629)이었다. 등극 후 진 문공

39) 『論語注疏及補正』 협문, 147.

40) Hoyt Cleveland Tillman, "The Development of Tension between Virtue and Achievement in Early Confucianism: Attitudes toward Kuang Chung and Hegemon(pa) as Conceptual Symbols", *Philosophy East and West*, Vol.31, No. 1(Jan. 1981), 17-18.

은 중원 제패를 노리고 다시 북상하는 초국을 성濮戰(전 632)에서 대파하고 동맹국들과 더불어 천토(踐土)에서 회맹(전 632)을 개최하였다. 이 천토 회맹에서 주 양왕은 진 문공을 ‘백(伯)’에 임명(전 631)하여 패주로 인정하고 진 문공도 주왕에 충성을 서약하였다.⁴¹⁾ 이 같은 진국의 패정은 일대에 그쳤던 제 환공의 패정과는 달리 진 양공(전 627~21), 영공(전 620~607) 성공(전 606~600) 때까지 약 32여 년 간 계속되었다. 그러나 진국의 패정은 제 환공의 패정과는 그 성격이 많이 달랐다.

제 환공이 패주였을 때에는 약소열국에 대해서 군사적 의무를 강요하지 않았으며 이적 격퇴 시 공동 출병과 회맹 개최 시 각국의 참석을 바랄 뿐이었다. 그러나 진 양공은 약소열국에 대해 군주 5년 1조의 조공(朝貢)과 대부 3년 1조의 조빙(朝聘) 이행을 요구하고⁴²⁾ 공부(貢賦)도 증액하고 징발이 가혹하였으며⁴³⁾ 경우에 따라서는 약소열국의 군주도 진국의 수도로 소환하고 구속도 하고 암살도 시도하였다.⁴⁴⁾ 진국의 패정이 이 같이 고압적이었던 이유는 당시 주왕의 권위와 위엄의 실추, 각국 권력정치의 자행, 진국 패업에 대한 초국의 부단한 도전 등의 시대적 추세와 국제상황이 진국의 패정을 고압적으로 만들었던 것 같다. 그러므로 진국 패주들은 화하세계의 결속 평화와 공동번영 보다는 고압적 패정으로 국제정치를 주도할 수밖에 없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진국의 패업은 고대 그리스 폴리스 시대 아테네와 스파르타가 폴리스 연합의 단순한 맹주였던⁴⁵⁾ 것과 같이 무력만으로 국제사회를 주도한 패업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흉노 제국의 패업을 보면 흉노는 서역을 역속(役屬) 시킨 후 3단계로 통어하였는데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질자(質子) 담보, 감시단(監視國) 파견, 동복도위(僮僕都尉) 설치였다. 흉노는 서역 각국에 질자를 요구하여 흉노 선우의 왕정(王庭)에 거주시키고 질자를 담보로 서역 각국의 복속과 충성을 강요하였으며 유사시에는 질자를 왕으로 등극시키어 친 흉노 정권 유지에 노력하였다.

41) 『左傳注疏及補正』, 16 : 7a.

42) 위 논문, 261 참조.

43) 위 논문, 268 참조.

44) 위 논문, 267 참조.

45) Sydney Roson, 앞 논문, 99 참조.

또 서역 각국에 감시단을 주둔 시켜서 각국 동태를 감시하여 반 흉노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였다.⁴⁶⁾ 그리고 서역의 교역과 교통 중심지 인기, 위수, 위려 일대의 중간 지역에 동북도위를 설치(전 93)하고 서역 각국으로부터 부세를 징수하고 인력과 물자를 징발하여 흉노 세력 확장에 활용하였으므로 당시 서역은 흉노 후방의 병참기지 역할을 하고 있었다.

또 평성에서 참패한 한 제국은 흉노와 화친약 체결을 통해 화해를 하였지만 그 조건으로 매년 일정량의 무명, 비단, 누룩, 식량 등의 세폐 봉헌과 매 선우 등극 시 한 황실 공주의 출가 그리고 국경의 관시(關市)를 통한 교역 요구였다. 그리고 이에 대한 흉노의 대가는 한 제국 북변 침탈의 중지였다. 그러나 흉노는 화친약을 지키겠다는 의도는 처음부터 없었다. 이후 흉노는 화친약을 수시로 배약하여 국가 주도의 약탈 원정을 거의 매년 계속하였으며 무력이 약한 한 제국은 오직 세폐를 증가하여 흉노를 달래는 것 뿐이었다. 이 같은 흉노-한 제국 간의 입공관계는 한 고조 9년(전 198)에 체결된 이후 한 고조 이후 혜제, 여후, 문제, 경제, 무제 원년(전 134)까지 약 64 여 년간 계속 되었다. 위만조선에 대한 흉노의 정책은 위에서 언급한 대로 자료의 결핍으로 상세한 것은 알 수 없다.

이 같은 사실로 미루어 볼 때 흉노는 강력한 무력으로 위만조선을 복속 시키고 서역을 역속 시켜서 인력과 물자를 강요하고 한 제국을 복속시켜서 정기적인 입공을 받고 동아시아 패권을 장악하였지만 주변국에 대한 정책은 극히 위압, 고압, 수탈적이었으며 주변국과의 평화 유지와 공동 번영 추구는 없었다. 이런 점에서 흉노 제국의 패업은 화하세계의 결속, 평화와 공동번영을 추구하였던 춘추 시대 제국의 패업 보다는 무력으로만 국제사회를 주도하였던 진국 타입의 패업에 가까웠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주변국에 대한 흉노의 패정은 이 같이 위압, 고압, 수탈적이었으며 또 한 제국의 도전 속에서도 장기간 유지되었는데 이 같은 흉노의 패정 장악과 장기간 유지는 단순히 무력에만 의지하였던 것은 아니었던 것 같다.

46) 西域都護府的建立, 2010년 01월28일:56 新疆哲學社會科學網, 1-2.

2. 선우(單于) 존호 속의 통치사상과 천하관

앞장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흉노 제국의 영역을 살펴보면 몽골초원을 중심으로 동쪽으로는 위만조선을 복속 시키고 서쪽으로는 중앙아시아를 석권하고 남쪽으로는 한 제국의 입공을 받고 있었으므로 흉노 제국은 사실상 동아시아 천하를 장악한 것이었다. 그런데 흉노 제국의 기본적 정치·경제·사회체제를 제외한 문화와 사상 등에 관한 연구는 문자가 부재하였던 유목문화의 한계성 때문에 제약 받을 수밖에 없으므로 『사기』 등의 중국 측 자료에 의지할 수밖에 없다. 먼저 흉노의 최고 통치자 선우 존호의 의미에 대해서 『사기』는 아래와 같이 기록하고 있다.

선우의 성씨는 연제씨(攣鞮氏)였다. 그 나라에서는 선우를 탕그리쿠트 선우(橐犁孤塗單于)라고 불렀는데 흉노에서는 하늘을 “탱그리(橐犁)”라 하고 이들을 “쿠트(孤塗)”라고 불렀다. 선우는 넓고 큰 모습으로 하늘과 같이 넓고 크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單于姓攣鞮氏 其國稱之曰 橐犁孤塗單于 匈奴謂天謂橐犁 謂子爲孤塗單于者 廣大之貌也 言其象天單于然也).⁴⁷⁾

이에 의하면 선우의 정식 명칭은 “탱그리쿠트선우(橐犁孤塗單于)”였다. 흉노 사회에서 하늘을 ‘탱그리(橐犁)’ 그 이들을 ‘쿠트(孤塗)’라 하였으며 선우는 하늘과 같이 ‘넓고 크다’는 의미였으므로 ‘탱그리쿠트선우’의 뜻은 ‘하늘에서 태어난 대천자(大天子)’의 뜻이었다. 아래의 두 서신은 모둔 선우와 노상 선우가 각기 한 제국 황제에게 보낸 일부 내용이다.

다음해 선우는 한 나라에 글을 보냈는데 하늘이 세우신 흉노 대선우는 삼가 황제에게 문안하오니 그간 무양하신지요(其明年 單于遣漢書曰 天所흥노의 패정은立匈奴大單于敬問皇帝無恙).⁴⁸⁾

47) 『漢書』 卷 94上, “匈奴傳”, 3751.

48) 『史記』 卷119, 「匈奴列傳」, 2897.

천지가 낳으시고 일월이 세우신 흉노의 대선우는 삼가 한 나라 황제에게 삼가 문안드리오니 무양하십니까?(天地所生日月所置匈奴大單于敬問漢皇帝無恙)⁴⁹⁾

위 인용문에 의하면 모든 선우와 노상 선우는 각기 자신을 “하늘이 세우신 흉노 대선우”, “천지가 낳으시고 일월이 세우신 흉노의 대선우”로 지칭하여 우주천지자연의 창조주 ‘천’으로부터 임명된 신성한 대선우로 자처하였다. 선우 칭호에 함축된 이 같은 통치사상과 이념을 중국의 천자 존호에 함축되어 있는 통치사상과 이념과 비교하여 그 의미를 살펴볼 수 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주 왕조의 주왕은 자신을 우주천지자연의 창조주 ‘천’으로부터 ‘천명’을 부여 받은 유일무이한 천명의 봉행자로 선포하여 주왕 통치의 정통성을 수립하고 또 하늘의 ‘천’과 지상의 주왕을 의제적 부자관계로 설정하여 주왕을 하늘의 아들 ‘천자’로 승화시켜서 주왕 통치의 신성성을 수립하고, 천하를 통치영역으로 선포하여 주왕을 유일무이한 천하통치자로 설정하였다. 그런데 흉노의 주신(主神) ‘탱그리(撐犁)’는 주족이 숭배하였던 ‘천’과 동일한 신이었으므로⁵⁰⁾ ‘탱그리’는 주족의 ‘천’과 같이 동일한 우주천지자연의 창조주였다. 또 흉노는 ‘탱그리’의 아들을 ‘쿠트(孤塗)’라 하고 선우의 정식 명칭은 ‘탱그리쿠트선우(撐犁孤塗單于)’였으므로 선우는 우주천지자연의 창조주 ‘탱그리’의 아들 “쿠트” 즉 중국식 호칭으로는 바로 천자(天子, The Son of Heaven)였다. 다시 말하면 주족이 우주천지자연의 창조주 ‘천’과 지상의 주왕을 의제적 부자관계로 설정하여 주왕을 하늘의 아들 천자로 승화시켜서 주왕 통치의 신성성을 수립하였던 것과 같이 흉노도 하늘의 ‘탱그리’와 지상의 선우를 의제적 부자관계로 설정하여 탱그리 아들 ‘쿠트’로 승화 시켜서 선우 통치의 신성성을 수립한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또 선우는 “하늘이 세운 흉노 대선우”, “해와 달이 세운 흉노 대선우”에서와 같이 우주천지자연의 창조주 ‘탱그리’에 의해 임명되었는데 이것은 주왕이 자신

49) 『史記』 卷119 “匈奴列傳”, 2899.

50) 니콜라 디코스모 저, 이재정 역, 『오랑캐의 탄생』(황금가지, 2007), 452, 주 38 참조. 저자는 주족의 ‘천’과 티가-몽골의 ‘탱그리’는 동일 신(神)이었다는 시라가와 시즈카 주장을 제시하고 있는데 필자 역시 이 의견에 동의하고 있다.

을 유일무이한 천명의 봉행자로 선포하여 통치의 신성성과 유일성을 수립한 것과 같이 선우도 우주천지자연의 창조주 ‘탱그리’ 명령의 유일무이한 봉행자로 선포하여 통치의 신성성과 유일성을 선포한 것이다. 그리고 선우는 ‘탱그리’ 명령을 받드는 유일무이한 봉행자였으므로 그의 통치 영역은 주왕의 통치영역과 같이 어떤 한정된 지역에 국한될 수 없었고 전 세계이어야 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탱그리’의 절대적 권위와 위엄에 의탁하여 수립된 흉노의 통치사상과 천하관은 ‘천’의 절대적 권위와 위엄에 의탁하여 수립된 주 왕조의 통치사상과 천하관과 본질적으로 같았다고 할 수 있다.

또 고대의 정복자들은 한결 같이 자신들을 특정신의 특별 소명을 받은 ‘신의 사자’, ‘신의 아들’, ‘신의 소명자’ 등의 유일무이한 소명 수행자로 자처하면서 ‘자신이 세계를 통치 한다’, ‘신으로부터 세계를 통치하도록 특별 명령을 받았으므로 영토를 세계로 확대하는 것은 성스러운 것이며 신성한 전쟁에 반항하거나 모독하면 멸망뿐이다.’라고 선포하면서 주변국에 대한 정벌을 감행하였는데⁵¹⁾ 흉노 제국 선우와 한 제국 천자도 이 같은 고대 정복자 중의 일부였다고 할 수 있다.

이 같은 사실에서 볼 때 동아시아 패권을 장악하고 일극체제의 국제질서를 수립한 흉노 제국의 패정은 극히 위압, 고압, 수탈적이었으며 또 한 제국의 부단한 도전에 직면하였지만 동아시아 패권을 장악하고 장기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유목민 특유의 우수한 무력과 더불어 우주천지자연의 창조주 ‘탱그리’와 같은 특정신의 절대적 권위와 위엄에 의탁한 통치사상과 천하관이 안에서 떠받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런 점에서 ‘탱그리’같은 특정신의 절대적 권위와 위엄에 의탁한 흉노의 통치사상과 천하관이 흉노 패업 달성과 유지의 내적 원동력이었다고 할 수 있다.

51) A. Gardiner, *Egyptian Grammar*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52). 74.

V. 맺는말

기원전 4~2세기를 전후한 동아시아 정세를 장성(長城)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장성 이남의 중원에는 춘추전국 시대 주대 제후국들이 자주국가로 발전하여 국제사회를 형성하고 이해관계에 따라 치열하게 대립하고 있었다. 이 중 북쪽 변방의 후진국 진국이 상양의 변법 시행에 의해서 부국강병을 이룩하고 이어서 전국6국을 통일하여 진 제국을 수립 하였다. 그러나 단명의 왕조로 끝났기 때문에 뒤를 이은 한 제국이 전제군주 황제를 정점으로 중앙집권적 통일국가를 완성하였으므로 600여 년간 분열 대립되었던 중원은 한 제국 통치 하에 완전히 통일되었다. 이와 비슷한 시기 장성 이북의 북아시아 지역에도 대일통 작업이 진행되고 있었다.

장성 이북의 초원 지역에는 흉노를 포함하여 수많은 유목부족들이 부족 단위로 유목생활에 종사하고 있었는데 한 번도 통일된 적이 없었다. 그런데 이 중 동몽골초원의 흉노가 기원전 4세기경에 주변 유목부족들을 차례로 복속시키고 광대한 북아시아를 통일하여 흉노 유목제국을 수립하였다. 또 이 보다 약간 늦은 기원전 2세기경 중원 남쪽의 남월국과 동북쪽의 위만조선이 각기 수립되고 서쪽의 서역 도시국가들이 융성하고 있었으므로 동아시아 세계에는 중원 한 제국을 중심으로 북쪽의 흉노 제국, 서쪽의 서역 국가, 남쪽의 남월국, 동북의 위만조선으로 구성된 열국 시대가 전개되었다.

이 중 북아시아를 통일한 흉노 제국이 대외팽창정책을 추구하여 서쪽으로는 서역 도시국가들을 경략하고 동쪽으로는 위만조선을 복속시키고 남쪽으로는 평성에서 한 제국을 대패 시켜서 입공을 받고 있었으므로 당시 동아시아는 패권을 장악한 흉노 제국을 중심으로 일극체제의 국제질서가 수립되었다. 이후 흉노 제국의 패권은 한 제국의 부단한 도전 속에서도 장기간 지속되었는데 이 같은 동아시아 패권 장악과 장기간 유지는 무력에 의해서 가능했던 것만이 아니고 특정신의 절대적 권위와 위엄에 의탁한 통치치사상과 이념이 내적 원동력으로 작동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흉노 사회에서 주신(主神)은 ‘탱그리’였다. ‘탱그리’는 주족의 ‘천’과 같은 우천지자연의 창조주였으며 ‘탱그리’의 아들은 ‘쿠트’라고 하였다. 그리고 흉노

선우의 정식 명칭은 ‘탱그리쿠트선우’였으므로 흉노 최고 통치자 선우는 우주천지자연의 창조주 ‘탱그리’의 아들 ‘쿠트’ 즉 하늘의 아들 중국식의 천자였다. 선우는 또 자신을 ‘하늘이 세운 흉노 대선우’, ‘해와 달이 세운 흉노 대선우’로 선포하였는데 이것은 최고 통치자 선우는 우주천지자연의 창조주 ‘탱그리’에 의해 임명되었다는 뜻이었으므로 선우는 ‘탱그리’명령의 유일무이한 봉행자였다. 그리고 ‘탱그리’의 아들 ‘쿠트’의 통치 영역은 특정 지역이나 국가에 국한될 수 없으므로 선우의 통치영역은 바로 천하였다.

그런데 주 왕조의 주왕 역시 자신을 우주천지자연의 창조주 ‘천’으로부터 ‘천명’을 받은 유일무이한 천명의 봉행자로 천명하여 통치의 신성성과 유일성을 주창하고 통치 영역을 천하로 설정하여 유일무이의 천하 통치자로 자처하였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우주천지자연의 창조주 ‘탱그리’의 절대적 권위와 위엄에 의탁한 흉노의 통치사상과 천하관은 사실상 주 왕조의 통치사상과 천하관과 일치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주 왕조의 우주천지자연의 창조주 ‘천’의 절대적 권위와 위엄에 의탁한 통치사상과 천하관이 역대 왕조에서 대외팽창의 이념적 원동력이 되었던 사실을 감안하면 흉노 제국이 동아시아 패권을 장악하여 일국체제의 국제질서를 수립하고 한 제국의 집요한 패권 도전 속에 동아시아 패권을 장악하고 장기간 패권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유목민 특유의 강력한 무력과 더불어 ‘탱그리’같은 특정신의 절대적 권위와 위엄에 의탁한 통치사상과 천하관이 그 원동력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흉노 제국은 무력으로 패권만 장악하여 주변국으로부터 물자와 인력을 징발하고 입공만 강요하였을 뿐 평화와 공동번영을 주도하지 못하였으므로 흉노 제국의 패업은 춘추오패 중에서 화하열국 간의 평화와 공동번영을 주도한 제 환공의 패업 보다는 오직 무력만으로 국제사회를 주도했던 진국의 패업에 가까웠다고 할 수 있다.

- ▶ Submitted : 2017. June. 1
- ▶ Reviewed : 2017. June. 12
- ▶ Accepted : 2017. June. 20

References

『論語注疏及補正』

『大漢和辭典』.

白川靜, 『字通』, 平凡社.

『鹽鐵論』

『史記』.

『說文解字義證』

『新書校注』,

『左傳注疏及補正』.

『漢書』

Kang Inwook, “gi-won-jeon 4~1se-gi-ui go-go-hag ja-lyo-lo bon hyung-no-wa dong-a-si-a”, *jung-ang-a-si-a-yeon-gu* 1:5.

Lee Choonsik, *chun-chu-jeon-gug si-dae-ui beob-chi-sa-sang-gwa se(勢·sul(術))*, Acanet, 2002.

_____. *jung-gug-pae-gwon-ui ppu-li-wa i-nyeom*, go-lyeo-dae chul-pan-bu, 2014.

西域都護府的建立, 2010面 01月28日: 新疆哲學社會科學網 56, 1-2. 『韓非子』

松田壽男著作集 2, 「匈奴の僮僕都尉と西域36國」, 『遊牧民の歴史』, 東京: 六興出版, 1986

『アジア 歴史辭典』 7, 平凡社, 88.

護雅夫, 「匈奴-古代遊牧國家の形成」, 『東アジア文明の形成』, 東京: 筑摩書房, 1960.

RiOTTO, Maurizio, “Ancient Koreans-Xiungnu: What was the Nature of Their Relation?”, *Journal of Northeast Asians History*, Vo.6, No.1(June 2009).

Roson, Sydney, “Changing Conceptions of the Hegemon in Pre-Ch'in China” in David T. Roy and Tsuen-hsuei, eds., *Ancient China*, Hong Kong : The Chinese University Press, 1978.

Tilman, Hoyt Cleveland, “Development of Tension between Virtue and Achievement in Early Confucianism: Attitudes toward Kuang Chung and Hegemon(pa) as Conceptual Symbols”, *Philosophy East and West*, Vol.31, No. 1. Jan. 1981.

Yü, Ying-shih, *Trade and Expansion in Han China*,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67.